



〈김원섭〉

## 호랑이 기초부터 다시 다져라

집중력 잃은 플레이에 잇단 작전 실패... '졸전의 연속'  
 디펜딩 챔프 다운 모습 찾아볼수 없어 분위기 전환 필요

붕괴위기의 '조법현호' 기초부터 다시 세워라.  
 지난주 사직과 목동으로 원정을 다녀온 KIA 타이거즈가 1위 질주중인 SK 와이번스와 주중 홈에서 격돌한다. 주말에는 다시 사직으로 이동해 롯데와 시즌 세 번째 대결을 갖는다. 공·수의 완벽한 조화 속에 무서운 속도로 승을 사냥하고 있는 SK라는 막강한 적을 상대해야하는 KIA는 내부 강화라는 숙제까지 동시에 풀어야한다.  
 KIA는 지난주 하위권팀인 롯데, 넥센과의 경기에서 3승3패를 기록했다. 5할 승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경기내용은 낙제점이었다. 공·수·주에서 집중력 잃은 플레이가 속출했고, 작전과 선수 교체도 백발백중 실패로 돌아갔다.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속에 사령탑이 운용의 미를 살리지 못하면서 졸전의 연속이었다. 지난주 거둔 승리도 KIA 스스로 만들어내기 보다는 상대팀의 자멸로 간신히 챙긴 부끄러운 승리들이었다.  
 그동안의 조급함에 장기적인 시즌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다질 타이밍도 놓쳤다. SK와의 홈경기에서 이어 사직 원정에 나서야 하는 KIA에 라이트-김상현의 공백도 크다. 초반 타이탄 불펜 운용속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 마운드가 라이트의 가세로 겨우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햄스트링 부상이 나왔다. 무릎 부상으로 시즌 준비가 완전히 않았던 김상현도 결국 허리부상까지 더해 재활군에 내려갔다.



지난해 우승의 주역들에게 부담이 가중됐지만 믿었던 선수들은 제 몫을 해주지 못했고 대안 찾기도 지지부진했다. 선발투수진의 갑작스런 부상과 함께 시작한 시즌 초반, 한 숨 골라가야 할 시점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오히려 속도가 더더진 셈이다.  
 당장 1승보다 급한 것은 시즌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위한 저력 쌓기다. 1승에 급급하기 보다는 선수기용의 폭을 넓히는 등 과감한 선택으로 분위기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호쾌한 방망이의 부활에는 테이블 세터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부동의 테이블 세터진 이용규의 김원섭의 슬럼프가 길어지면서 지난 주 6경기에서 매번 다른 조합을 선택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테이블 세터진은 지난주 6경기에서 0.200의 타율로 2타점 5득점을 기록하는 데 만족했다. 결정적인 순간의 병살타와 헛방망이질로 하위 타순과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왔다. 여기에 이용규-김원섭이 합작한 출루율은 0.333로 시즌 팀 출루율(0.336)보다도 낮았다. 부동의 테이블 세터진 완성키 KIA 공격의 활로를 찾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18	5	0	0.783	10승
2	두산	14	7	1	0.636	2승
3	LG	12	9	1	0.545	2승
4	삼성	13	12	0	0.520	2패
5	KIA	10	13	0	0.435	1승
6	한화	9	15	0	0.375	2패
7	넥센	8	15	0	0.348	1패
8	롯데	8	16	0	0.333	3패

〈이용규〉



슛 저지

26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 조대어고와 정신여고의 경기에서 정신여고 최다래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총장중 타이거즈기 품었다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동성중 꺾고 우승

총장중이 제 4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총장중은 2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동성중과의 대회 결승에서 11회 연장 접전 끝에 4-3으로 우승기를 차지했다.  
 초반 경기 흐름은 2회 2점을 뽑아낸 동성중이 주도했다. 하지만 3회말 총장중은 3회말 4개의 안타로 3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5회 동성중이 3-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뒤 양팀의 추가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11회말 총장중 선두타자 정기훈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 2개로 3루까지 질주했고, 임도열의 끝내기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4-3 총장중의 승리로 끝났다.  
 총장중 2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문지훈은 6이닝동안 5탈삼진 4피안타 무실점의 투구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대회 최

우수선수상을 거머쥐었다. 문지훈은 '야구인 2세'로 동강대 문희수 감독의 아들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KIA가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개최했으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0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다.

대통령배 야구 광주일-군산상고 우전 '서스펜디드'

1대1 상황...오늘 7회초부터 재개

제 44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군산상고의 개막전이 우전으로 '서스펜디드(일시 정지) 게임'이 선언됐다.  
 2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개인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 문지훈(총장중) ▲우수투수상 : 정기훈(총장중) ▲타격상 : 김현수(총장중) ▲최다안타상 : 임도열(총장중) ▲최다홈런상 : 김대선(총장중) ▲최다도루상 : 임도열(총장중) ▲최다타점상 : 문지훈(총장중) ▲수훈상 : 임도열(총장중) ▲감투상 : 박규민(동성중) ▲미기상 : 이재두(동성중)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회 개막전이 우전으로 7회초 1-1의 상황에서 중단됐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서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되던 대회 첫 경기는 결국 서스펜디드 게임이 됐다. 이 경기는 27일 오후 1시 7회초 광주일고의 공격부터 재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이틀 연속 안타 2개를 때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2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오글랜드 콜리시움에서 계속된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미국프로야구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출장, 4타수2안타를 기록했다.  
 전날에 이어 시즌 7번째로 한 경기에서 안타 2개 이상을 때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313(64타수20안타)으로 올렸다.  
 클리블랜드는 산발 7안타에 묶여 오글랜드에 0-11로 크게 패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회원의 날 행사에서 회원들이 기탁한 쌀 앞에서 차성만 함평다이내스티CC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다섯번째)를 비롯한 회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함평다이내스티CC 제공>

##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들 아·름·다·운·기·부

사계절 푸르른 양산디 골프장인 함평다이내스티CC(대표이사 차성만)의 회원들이 아름다운 기부행사를 가졌다.  
 지난 25일 개장 6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 회원의 날 행사를 가진 함평다이내스티CC는 행사 참가 회원들로부터 기부 받은 20kg짜리 함평 나비쌀 70가마를 26일 학교면에 기탁했다.  
 이날 기부한 쌀은 회원 20명이 50가마, 함평다이내스티 임직원들로부터 구성된 '사랑나눔회'가 20가마를 기탁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전달될 계획이다.  
 '함평다이내스티 사랑나눔회'는 2년 전부터 결성되어 매월 일정금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면 두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차성만 대표이사는 "이런 쌀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뜻이 있는 회원 및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최경주 뒷걸음질... 37위에 그쳐

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최경주(40)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620만달러·68억여 원)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최경주는 26일(한국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 에이번데일의 루이지애나TPC(파72·7341야드)에서 3라운드 잔여 경기와 4라운드경기를 한꺼번에 치르는 강행군 끝에 공동37위(5언더파 283타)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이날 12번 홀부터 경기에서 나서 5연속 버디를 뒀으며 순위를 18위까지 끌어

올렸지만 이어진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1타를 잃는 바람에 순위는 다시 중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  
 대회 내내 티샷 퍼어웨이 안착률이 57%에 그친데다 아이언샷 정확도마저 50%에 지나지 않아 고전한 최경주는 그나마 그린플레이어로 버티내 더 이상 순위 하락은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위창수(38)는 공동 21위(7언더파 281타)에 올랐다.  
 제이슨 본(미국)이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쳐 우승했다.  
 /연합뉴스